

광주 반려동물 하루 10마리 유기·분실 그들도 우리처럼 '민증'이 필요해

양육 가구 매년 늘어나는데
반려동물 등록은 타시도의 절반
찾기 쉽도록 체계적인 관리 절실
동반자로 인식, 반드시 등록해야

개나 고양이 등 집안에서 길러지는 반려동물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양육 가구 상당수가 '동물등록'을 꺼리고 있어 유기동물이 급증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물등록제가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보다 빠르게 주인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돕고, 무책임한 동물 유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양육 가구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지역 동물단체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16만 2752가구로 광주시 전체 가구수(61만 6485가구)의 26.4%를 차지했다. 4집 가운데 1집 꼴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광주에는 동물병원 118곳, 애견미용업소 225곳이 영업 중으로 반려동물 양육 문화가 일변화됐다.

길러지는 반려동물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개가 전체의 65%인 16만 3000여 마리로 가장 많고, 고양이는 7만여 마리가 길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광주지역 반려견 16만 3000여 마리 가운데 지자체에 등록된 반려견은 5만 마리로 등록률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견주는 태어난 지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지킴이증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보호와 유기방지를 위해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광주지역 견주들의 참여율은 타 도시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19년 기준 4만 3759마리가 등록되는데 비해 도시규모가 비슷한 대전의 경우 광주보다 60% 많은 7만 734마리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구는 9만 4387마리, 인천은 14만 2582마리로 조사됐다.

조경 가치보증 대표는 "안타깝지만 광주의 동물



반려동물 양육가구 상당수가 동물등록을 꺼리고 있어 잃어버릴 경우 유기동물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화순의 반려견 유치원 '도담도담'을 찾은 반려견들이 즐겁게 활동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등록률이 타도시 대비 낮다는 건 그만큼 견주들의 의식 수준이 낮다는 걸 의미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견주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견주들의 생각이 변해야 가능하다"며 "또 판매되거나 분양되는 반려견들 대부분이 생후 2개월 안팎의 시기에 농장(동물판매업소)에서 판매된다는 점에서 농장에서 동물등록을 한 뒤 판매하는 방식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를 대신해 동물등록을 대행하고 있는 동물병원 등에서도 동물등록제 안내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에 대해 한 동물병원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아파 병원을 찾은 견주에게 동물등록을 권유하는 게 쉽지 않는데다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어려워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는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저조한 동물등록률이 결국 동물 유기로 이어진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당장 광주 도심에 버려진 동물은 2015년 1703마리에서 지난해 3557마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려동물을 가족이라 여기며 기르다 어느순간 길거리로 내버려두고 마치고 장난감 다루듯 하는 무책임한 소유자들 탓에 하루 평균 반려동물 10마리가 길가에 버려지고 있다.

송정은 광주동물메디컬센터 대표원장은 "전반적으로 의식의 문제이다. 하지만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린다는 등의 홍보 보다는 '잃어버린 내 아이를 더 빨리 찾을 수 있다'는 식의 장점을 부각시킨 홍보와 함께 반려견을 등록한 견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 등으로 참여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 내장형칩 동물등록시 3만원 지원

1인당 최대 3마리까지 가능

광주시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40만명 시대를 맞아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2개월령 이상 반려견 소유자가 내장형칩 방식으로 동물등록을 하면 3만원을 반려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마리에 한해 첫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다음달 1일부터 내장형칩으로 동물등록을 한 주민등록 주소지가 광주시인 반려인이다.

신청 절차는 반려인이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칩으로 동물등록을 하고 동물병원에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관할 구청에서 반려인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며 1인당 최대 3마리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을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

나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를 통해 동물등록을 해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반려인은 전자태그를 목에 걸고 다니는 외장형과 마이크로칩을 몸에 삽입하는 내장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김현중 광주시 생명농업과장은 "반려인이 걱정하는 내장형칩 삽입에 따른 부작용은 지난 8년간 동물등록 추진 결과 거의 없어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반려인은 유기동물 예방을 위해 안심하고 내장형칩으로 동물등록을 해 반려견과 함께 일상의 안전한 삶을 누리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5·18 학술 연구, 역사·사실→문화예술로 전환

기념재단 '5·18 학술총서' 발간 기초조사 결과 발표

5·18민주화운동 관련 학술 연구방향인 '5·18역사와 사실'의 연구에서 '문화예술 및 문화운동'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재단(5·18기념재단)은 2006년 이후 5·18관련 학술연구 성과를 수집해 분석하는 '5·18 학술총서' 발간 기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985~2005년까지 학술 연구현황을 정리한 '5·18민중항쟁 연구의 현황' 제작 이후 15년 만에 다시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결과 200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표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학술 연구와 출판물은 400여건(학위 논문 83건·학술 논문 263건·도서 60여권)이 넘는다.

수집된 학술 논문의 주제와 내용 분류 결과 문학 관련이 38편으로 가장 많았고, 예술(24편)·환경(23편)·정치(22편)·법학(20편)·의미(20편)·심리(18편)·공간(15편)·왜곡(11편) 등 순이었다.

2000년을 전후한 시기까지는 5·18연구로 분류되는 주제를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영역은 '5·18 사건 관련'이었지만, 200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광주지역에서 시작되었던 문화중심도시 추진 등이 연구 주제가 됐다. 새로운 역사 만들기를 시도한 결과라는 게 연구진의 평가이다.

2000년 중반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체계

적이고 집요한 왜곡이 심해지면서, 이에 대응해 학계의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5·18을 왜곡하거나 폄하하는 도서도 20여권 출간됐다.

석·박사 학위 논문은 약 40%가 광주·전남에서 발표됐고, 광주·전남 이외 지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은 접근성 등의 한계 때문에 제한된 자료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5·18을 연구하는 연구자 집단에 안정적인 연구를 위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과 지역의 연구자들조차 5·18을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하고 있어 지속적인 학술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5·18기념재단은 또 5·18연구가 진실규명에서 점차 문화·예술 등의 연관 분야로 확장돼 왔다는 점에서 5·18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00년 중반 이후 5·18 왜곡시도에 대한 대응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과 5·18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일관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기념재단은 향후 5·18 학술연구를 위한 후학 양성, 지역 편향을 극복하는 교류,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 아카이브 구축 등과 관련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5·18사적지 29곳 일제점검

41주년 기념행사 대비

5·18민주화운동 29곳의 사적지에 대한 시설물 훼손여부 확인과 순찰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수 조사가 실시된다.

최근 5·18 사적지인 옛 국군 광주병원에 무단 침입 등의 사고가 발생해 사적지 내부가 훼손된 것에 따른 조치이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제41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다음달 1일까지 5·18사적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은 광주시에 있는 5·18사적지 29곳과 표지석 등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광주시와 자치구의 교차 점검으로 시설물 훼손유무 등을 세밀히 조사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제41주년 기념행사를 대비한 환경정비도 동시

에 진행된다.

광주시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해 오는 5월 이전에 시설물을 보수해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옛 국군광주병원을 포함해 505보안부대 옛터, 옛 광주직접사병원 등과 같이 침입이 쉬운 사적지는 5·18단체, 위탁경비 업체와 함께 순찰을 강화하고 보안장비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김종원 시 5·18선양과장은 "올해에는 코로나19가 종식돼 제41주년 기념행사에 국내외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5·18사적지는 우리 광주시민의 재산이자 지켜야 될 자존심 이면서 광주민주화운동의 큰 자산으로 시민 모두가 사적지를 소중히 생각하고 관심있게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 일요일까지 겨울비...5~20mm 예고

일요일인 24일 오전까지 광주·전남지역에 겨울비가 예보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1일 "이날 밤부터 22일 오전 사이에 5~20mm 비가 내리겠으며, 23일에는 제주도 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에 전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 24일 오전까지 5~2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측했다.

22일과 23일은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차차 올라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에 들겠으며, 낮 기온도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안팎으로 올라 평년보다 4~8도 높겠다.

22일 아침 기온은 4~8도·낮 기온은 9~14도 분포를 보이겠으며, 23일 아침 기온은 3~9도·낮 기온은 10~12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온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콘도 회원권 최저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단위: 만원)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대명 리조트	설악, 홍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1개	2,530	1,780	리솜 리조트	제천 포레스트 덕산 스피러스 안면도 아일랜드 제주 퍼스픽	실버(24)방1	2,850	1,680	
		골드(28)방2	3,210	1,980						
	스위트형 방2개	3,600	2,680	로얄(34)방3	4,890	3,480				
한화 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전,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거제	디럭스형 기명 (방2개)	2,480	1,680	켄싱턴 리조트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포천스키장, 제주돈산, 수안보, 제주하림, 제주서귀포, 경주, 남원, 하동, 해운대, 도고	패밀리B(21)방1	1,980	980	
		스위트형 기명 (방2개)	3,110	1,880			스위트A(26)방2	2,120	1,280	
		스위트B(31)방2	2,600	1,380						
								로얄(35)방3	3,200	2,20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